

새로운 꿈과 희망을 설계합시다



徐承鎭 山林廳長

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산림공직자와 임업인을 비롯한 전국의 산림가족 여러분!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부푼 200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찬란한 새 아침을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행복한 웃음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산림분야는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괄목할만한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뜻 깊은 일은, 1961년에 제정된 산림법을 45년 만에 폐지하고 산림기본법을 주축으로 분야별로 전문화한 12개의 법률체계를 새로이 마련하여 지난해 8. 5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재편과 더불어 산림정책의 큰 틀을 시대정신에 맞게 전환한 것 역시 커다란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산림의 경제적 효용성 못지않게 생태·환경적 건전성 및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 중시될 것입니다.

도시림·가로수 등 생활주변 녹지공간으로까지 산림정책의 영역을 확장하는 한편, 산림휴양·등산 등 산림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국유림이 주민의 참여와 협력 속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시행에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봄철만 되면 큰 산불이 나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첨단장비와 인력을 확충한 데 힘입어 예년에 비해 산불 피해가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주시험림(2,741ha)과 강원 홍천 국유림(33,696ha)이 국제적인 인증을 받음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현장이행을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딛는 의미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국제협력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산림투자협력 MOU를 체결하여 담보상태에 있는 해외조림사업의 활성화 전기를 마련하였고, 세계 최대 산림자원 보유국인 러시아와 산림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

중국·몽골 사막화 방지와 인도네시아 지진해일 피해 복구에도 참여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보다 21%가 늘어난 1조 2,0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그동안 숙원이던 『산림예산 1조원 시대』가 비로소 열리게 되었고, 조직과 인력

의 확충 및 재편, 조직문화와 인사제도의 쇄신 등 혁신활동을 통해 산림행정 발전의 기틀을 다진 한 해였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분야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척이 있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대단히 가슴 아픈 일들도 있었습니다.

7월에만 세차례의 집중호우와 태풍『에위니아』로 많은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산사태, 임도 피해 등을 복구하는 데 3,185억원이 소요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충남 부여에서 밤나무 항공방제를 하던 산림항공기가 추락하여 조종사가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솔잎혹파리나 참나무시들음병 등과 같은 병해충 피해가 증가하여 많은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산림가족 여러분!

새롭게 우리 앞에 펼쳐진 2007년은 산림분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해입니다.

산림청이 1967년 개청하여 올해로 꼭 40년이 되는 해이자 1998년부터 10년 기간으로 추진해온 제4차 산림기본계획을 마무리해야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를 맞아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온 산림행정 혁신의 성과가 정책을 통해 구체화되도록 하면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는, 제4차 산림기본계획을 내실있게 완료하고 제5차 산림기본계획을 알차게 준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공급에 관한 장기전망과 국민 의식조사 결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등을 기초로 야심찬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분야별로 실천 가능한 추진전략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녹화된 숲을 선진국 수준의 가치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뿌리내리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담아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는, 산림자원의 경제·환경적 가치를 높여나가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설계·감리제도의 시행 등을 통해 사업의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지역특색에 맞게 다양한 나무심기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법적 뒷받침을 통해 우리 산림분야의 영역으로 자리매김한 도시림과 가로수의 조성·관리업무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기후온난화 영향 등으로 기상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나 사전 예측능력을 높이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유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형산불 대응시스템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을 개정하여 새로 도입한 소나무류 생산확인제의 전국적인 시행, 그리고 대폭 증가한 사방사업 예산의 효과적인 활용 등을 통해 산림재해의 방지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산림경영 여건개선과 산주의 소득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전문성과 의욕을 가진 임업인을 육성하여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경영여건을 확충해 나가고 산림조합이 이러한 임업인들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대단히 어렵지만 꼭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정책적 역량과 지혜를 모아 피부에 와 닿는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산자원의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BT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는, 점점 늘어나는 산림 휴양문화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늘려나가고 서비스의 수준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자연휴양림을 비롯한 산림휴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운영시스템의 선진화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휴양만족도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또한 산림 내에서의 산책, 탐방, 등산 등 다양한 휴양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투자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여섯째는, 산림생태계의 건전성, 산지경관의 보전,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위해 합리적인 산지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 산지의 이용구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지역의 각기 다른 특성과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고 산림경영 또한 활성화되는 산지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데에 지혜를 모아 나갈 생각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고유의 산림생태계를 보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백두대간 자원 실태조사와 훼손지 복원, 복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곱째는, 산림분야 국제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DDA, FTA 등 임산물 협상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임업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협상 이후를 대비한 국내 임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국·몽골 등의 사막화 방지, 인도네시아 지진해일 피해복구, 탄소배출권 확보와 연계한 해외조림사업 등에서도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여덟째는,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산림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산림예산의 획기적인 증가는 우리 산림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그만큼 예산집행의 질적 수준 향상이 당연한 과제로 부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애로를 파악하여 사업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집행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절차나 규제는 과감히 없애나가되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고 성과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산림가족 여러분, 그리고 산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다시 출발선에 섰습니다.

시대는 우리에게 창조적인 생각과 발 빠른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공유하고 지혜와 슬기를 함께 모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산림녹화 성공의 빛나는 경험을 밑거름 삼아 세계인이 부러워하고 우리 국민이 행복해 하는 산림부국의 꿈과 희망을 새로이 설계해야 합니다.

개척 40주년을 맞는 오늘, 풀 한포기 없는 민둥산에 나무를 심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 힘찬 도약을 시작합시다. 그리고 산림이 각광 받는 시대를 활짝 열어갑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7년 새 아침을 맞으며

산림청장 서 승 진 드림